

'9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3년 12월 21일까지 1억 5천 3백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 대가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차량 한 대의 관광팀, '3퇴' 후 "우리 대신 리홍쯔 사부님께 감사 드려 주세요!"

유럽의 일부 관광명소는 이미 여행 비수기에 들어섰지만 대륙 관광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3퇴(퇴당, 퇴단, 퇴대)'의 열기도 뜨겁다. 한 차량의 관광객들이 3퇴를 하고 "우리 대신 리홍쯔 사부님께 감사 드려 주세요!"라고 했다.

한 젊은이가 자원봉사자에게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에요?"하고 물었다. 자원봉사자가 "예"하자 그는 "파룬궁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라고 했다. 자원봉사자는 그렇다면 '파룬파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파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하라고 그에게 말해줬다. 그는 거듭 "기억했어요, '파룬파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외우고, 또 "리홍쯔 사부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모두들 그리워해요."라고 하더니 한숨을 쉬면서 "빨리 돌아와서서 중국을 구해 주세요. 리홍쯔 대사님(大師)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옆에 있던 4, 50세 돼 보이는 남자가 칭찬하면서 "그래요, 정말 그래요!"라고 하자 주위 사람들도 따라서 머리를 끄덕였다.

자원봉사자는 "바로 리홍쯔 대사님께서 우리를 지켜 당신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겠어요? 빨리 '3퇴'하고 평안을 보장 받으세요."라고 했다. 젊은이는 매우 격동되어 "감사합니다. 리홍쯔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리홍쯔 대사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아직 생각하고 계셨네요!"라고 했다.

자원봉사자가 "당신들은 파룬궁이 좋고,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진(眞), 선(善), 인(忍)'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돈을 벌고 시체까지도 팔아먹



로스앤젤레스에서, 1억 5천만 중국인의 중공 당, 단, 대 탈퇴를 성원

었어요."라고 하자 주위 관광객은 "너무 못됐다, 너무 못됐다!"하고 외쳤다.

자원봉사자는 '장자석(藏字石, 2002년 6월 구이저우 핑탕현 장푸향에서 2억7천만 년 전의 장자석이 발견되었는데, 절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여섯 글자가 나타나 있었다.)' 사진판의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란 6글자를 젊은이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2억여 년 전에 돌에 새겨진 글인데 신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라고 하자 젊은이는 조급해하며 여러 사람에게 "그래요. 그것이 멸망하면 우리는 늦겠어요. 빨리 탈퇴합시다!"라고 했다.

차 한 대에서 내린 관광객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탈퇴했다. 그들은 차에 오르면서 저마다 자원봉사자와 악수하고 읊(揖)하며 허리를 굽혀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한 차량의 관광팀이 탈당하면서 당위서기를 독촉해 탈당하게 하다

탈당센터 자원봉사자 천(陳) 여사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대륙 남성 관광객 7, 8명에게 진상자료를 주었다. 한 관광객이 "우리는 모두 공산당원이고 모두 관원들이니 당신이 천천히 말해 보세요."라고 했다.

천여사가 진상을 말해주자 모두 '3퇴'에 동의했지만 한 사람

은 꾸물대면서 "당신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여사가 "그럼 당신이 정치가 뭘지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아무 말도 못했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한 사람이 "저분은 우리 당위서기인데 그를 탈당시키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천 여사는 그 서기를 향해 "당신은 우리들이 중공의 거짓을 폭로하고, 박해를 반대하는 것을 정치를 한다고 합니까?"라고 말하자 그는 말이 없었다.

천 여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공이 국가 정권을 찬탈한 64년 동안 8천만 중국인을 살해한 최악적인 역사와 근 14년 동안 몇 백만 파룬궁수련생을 해치고,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말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다. 천 여사는 그 당위서기를 향해 "거짓말을 폭로하고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만약 이것을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모든 사람들이 당위서기를 향해 "이분 말씀이 옳은 말씀이네요. 탈퇴하세요."라고 권하자 당위서기도 탈당에 동의했다.

선양 관광객, 당신 말을 들으니 정말 탈퇴해야겠어요!

자원봉사자는 관광지에 있

는 한 식품점에서 선양 관광객 몇 사람을 만났다. "동북 스모그는 좀 어때요?"라고 묻자 모두들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심하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은 동북뿐만이 아니라 중국 25개 성시 모두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는 "사실 안개먼지(霧霾)라 하지 않고 저승먼지(陰霾)라고 해요. 저승에서 온 물건이예요. 누가 악행에 대해 응보가 없다고 해요? 라오닝 선양, 다롄은 파룬궁을 심하게 박해한 지역이고, 보시라이, 구카이라이, 왕리쑤은 모두 직접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하고 시체를 판매하는 데 참여했고 선양 쑤자툰에 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을 수감하고 인체장기 창고로 만들었어요. 중공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늘의 징벌을 받지 않겠어요? 저승먼지 성분은 화장터 안의 유골 성분과 같아요. 모두 하늘의 뜻에 반하는 나쁜 물건이 소멸되고 난 재예요. 공산당이 다스릴 수 있겠어요?"라고 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불빛으로 비춰보면 모두 작은 알맹이예요. 이렇게 크게 나타난 길여태껏 본적이 없고 심한 구린내가 났어요!"라고 했다.

몇 사람은 탄식하면서 공산당이 사람을 해친다고 욕했다. 자원봉사자는 비관하지 말고 하늘의 뜻에 따라 재난을 피하고 평안을 보장 받으라고 했다. 중공을 포기하고 거짓, 사악, 투쟁을 버리고 '진(眞), 선(善), 인(忍)'을 믿으면 스모그현상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신불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알려줬다. 한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탈퇴해야겠어요!"라고 했다. 몇 사람은 3퇴한 후 "정말로 감사해요, 오늘 당신을 만나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라고 했다.

고질병이 나아지자 사방에서 놀라다

[밍후이왕] 1998년 3월 나는 불행하게도 양측 대퇴골이 괴사되어 절록거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쌍 지팡이에 의지해 걷다가 결국 걸을 수 없게 되어 고통스럽게 땅에서 기게 되었다. 나는 살아 있는 시체와 같아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 1999년 3월 나는 다행히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3월 만에 대퇴골 괴사가 기적같이 나아 지역에서 충격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그때 격동되어 또박또박 말하기를 “이건 정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나는 마중보(馬忠波)라고 한다. 금년에 42살이고 집은 하얼빈시 아청(阿城)구에 있다. 27세 되는 해에 양측 대퇴골이 심각하게 괴사되어 치료를 위해 한 채 밖에 없는 집까지 팔았다. 계속 치료했지만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마지막에는 지팡이조차 짚을 수 없어 땅에서 기기 시작했다.

하루는 80세 되는 외할머니가 ‘파룬궁은 아주 신기하니 할머니 집에 와서 파룬궁을 배우라’고 쓴 쪽지를 나에게 보내왔다. 나는 이

지경까지 된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외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았다.

정월 20일 외할머니는 연공을 배우도록 나를 데려가려고 왔다. 나는 ‘큰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데 연공해서 나올 수 있겠는가? 뼈까지 썩어 버렸는데 연공하여 되살아 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가지도 않겠지만 믿지도 않는다고 했다. 할머니는 파룬궁은 불법(佛法)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할머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외할머니는 80세인데 이렇게 정정하시고 28세인 나는 곧 죽게 되었으니 이건 무슨 일인가? 나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나 보자고 생각했다.

외할머니 집에 가니 외할머니는 수련하는 책 ‘전법륜’을 나에게 읽으라고 주었다.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단단히 매료되어 이틀만 만에 ‘전법륜’을 다 보았다. 나는 법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연공을 하고 4일째 된 그 날은 나의 일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



2013년 12월 7일, 미국 버지니아주 파룬궁수련생들이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시에서 거행된 제30회 성탄 대행진에 참가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중국대륙에서 온 청년은 너무 흥분되어 ‘정말 놀라워!’ 라고 외쳤다.

는 하루였다. 정월 25일 아침, 항상 무겁던 몸이 더 없이 가벼웠고, 항상 아프고 어지럽던 머리도 아프지 않고 유달리 맑았다. 일어나 앉은 나는 아주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웠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다리를 만져보니 아프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빨리 내 구두를 갖다 주세요!’하고 외쳤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을 수 없던 여자용 뽀족 구두를 신고 걷고 또 걷고, 기뻐서 웃고 떠들었다. ‘나는 걷게 되었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좋아졌어요. 진짜 다 나왔어요.’ 외할머니 식구들

은 모두 놀라 어리벙벙해 졌다. “정말? 정신적 효과 아니냐?” 나는 계속 외쳤다. ‘아니, 나는 진짜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걸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좋아졌어요.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오랫동안 웃어 본적 없던 나는 자신도 모르게 행복하고 격동되어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적시며 흘러 내렸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는 즉시 온 마을과 인근 촌을 뒤흔들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파룬파 파하오.(法輪大法好)’를 말하고, 파룬파파가 나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고 알려 주었다.(글/헤이룽장 파룬궁수련생 마중보)

‘610’ 두목 낙마, ‘610’ 죄악은 분명하다

[밍후이왕] 2013년 12월 20일 중공(중국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에서 중공의 ‘610’사무실 주임 겸 공안부 부부장 리동성(李東生)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앞서 ‘610’의 전임 두목 저우융강(周永康)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법적 처벌에 직면해 있다.

‘610’ 두목이 줄지어 낙마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중공 내부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파룬궁을 박해해 초래된 보응의 시작인 것이다. 밍후이왕은 ‘610’ 악당이 보응을 받은 소식을 이미 많이 보도했다. 근래 국민들도 늘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하늘은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악에는 악의 보응이 있는 것으로 코앞에 다가왔다.

중공 내부에서도 장쩌민 무리의 파룬궁 박해는 지지를 얻지 못했고,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자들은 모두 흉악하고 부정

부패하고 비열한 소인배로, ‘610’은 더구나 굴속의 음산한 뱀이나 담이 작은 쥐와도 같아 인격적으로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들이 내부 싸움으로 세력을 잃게 된 것 역시 필연적이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적인 조직으로 이 조직은 중공 사당의 중앙으로부터 성, 시, 현, 구의 각급 정부에 다 존재하는, 나치 게슈타포식의 방대한 범죄 조직과 유사하다.

중공의 비정상인 ‘문화대혁명식’ 파룬궁 박해는 1999년 7월 20일부터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610’사무실은 그보다 앞서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됐는데 당시 중공은 군중의 연공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했고, ‘610’사무실은 이미 크게 손을 쓸 준비를 다했다. ‘610’사무실은 설립된 그날부터 거짓말과 폭력

을 휘두른 범죄조직이었다.

지나간 14년 동안 각지 ‘610’ 불법 악도들은 공안, 검찰, 법원 등 기구를 조종해 선량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수십만을 헤아리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어떠한 법률 절차도 없이 노동교양소에 끌려갔고, 많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노동교양을 당했다. 수만을 헤아리는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형기는 재판도 하기 전에 ‘610’ 악도가 내부에서 결정했고, 많은 사람에게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각지 ‘610’악도는 또 대량의 세뇌반을 제멋대로 설치해 ‘법제교육’이란 간판을 내걸고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했으며, 납치한 파룬궁수련생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비방하는 데 사용한 거짓말을 강제로 주입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박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른



바른 믿음을 박해한 천고의 죄인 바 ‘전향’이다.

감옥이나 노동교양소와 세뇌반에서 신념을 견지하는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여러가지 혹형에 시달렸고, 심지어 비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다. ‘610’악당들의 두 손은 선량한 사람들의 선혈로 젖어 있다. 이 피의 대가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610’이란 이 방대한 범죄 조직은 납세자의 세금을 대량으로 낭비했고, 전국의 납세자들이 그들의 범죄행위에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선악에 보응이 있다는 것은 천리로서 범죄자들이 감질로 죄악을 만회하지 않으면 하늘 끝으로 도망친다 해도 결코 정의의 범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